



## 글로벌 'Son'

손흥민, 한국 최초 세계 남자 축구선수 '톱100'

한국 축구의 대들보 손흥민(26·토트넘)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뽑은 세계 남자 축구선수 '톱100'에 한국 선수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2012년부터 매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 100명을 선정하는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2018년 순위 중 71~100위를 먼저 공개했다. 이 중 손흥민은 78위로 뽑혔다. 가디언의 남자 선수 '톱100'에서 한국 선수가 이름을 올린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여자 순위에선 '지메시' 지소연(첼시)이 지난해 34위, 올해 41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러나 남자 순위에선 손흥민이 한국 선수 최초이며, 아시아에선 세 번째다. 아시아 남자 선수로는 가가와 신지가 2012년(94위), 2013년(89위) 포함됐고, 혼다 게이스케(이상 일본)가 2013년 68위에 오른 바 있다. 올해 남자선수 '톱100' 투표엔 지도자, 전·현직 선수, 언론인 등 세계 69개국 22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했다. 가디언은 "높은 에너지를 뽐내는 손흥민은 관중이 좋아하는 선수"라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황금발' 메시

호날두 제치고 5번째 '골든슈'...역대 최다 수상

유럽 최고의 골잡이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를 다섯 개째 받아든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이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메시는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골든슈 축하행사에서 "내가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 꿈은 단지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이 정도까진 상상 못 했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어 "힘든 훈련과 노력, 무엇보다 동료들 덕분에"이라며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옆에서 뛰해주면서 내가 이 상들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메시는 지난 2017-2018시즌 모두 34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32골)를 제치고 유러피언 골든슈 수상자로 결정됐다. 2007-2008, 2010-2011, 2013-2014, 2014-2015시즌에 이어 다섯 번째로 골든슈를 받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총 4회 수상)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가 됐다. 메시는 이번 시즌에도 프리메라리가에서 총 14골을 넣으며,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KIA 연봉 협상, 시작부터 찬바람



안치홍

김선빈

윤석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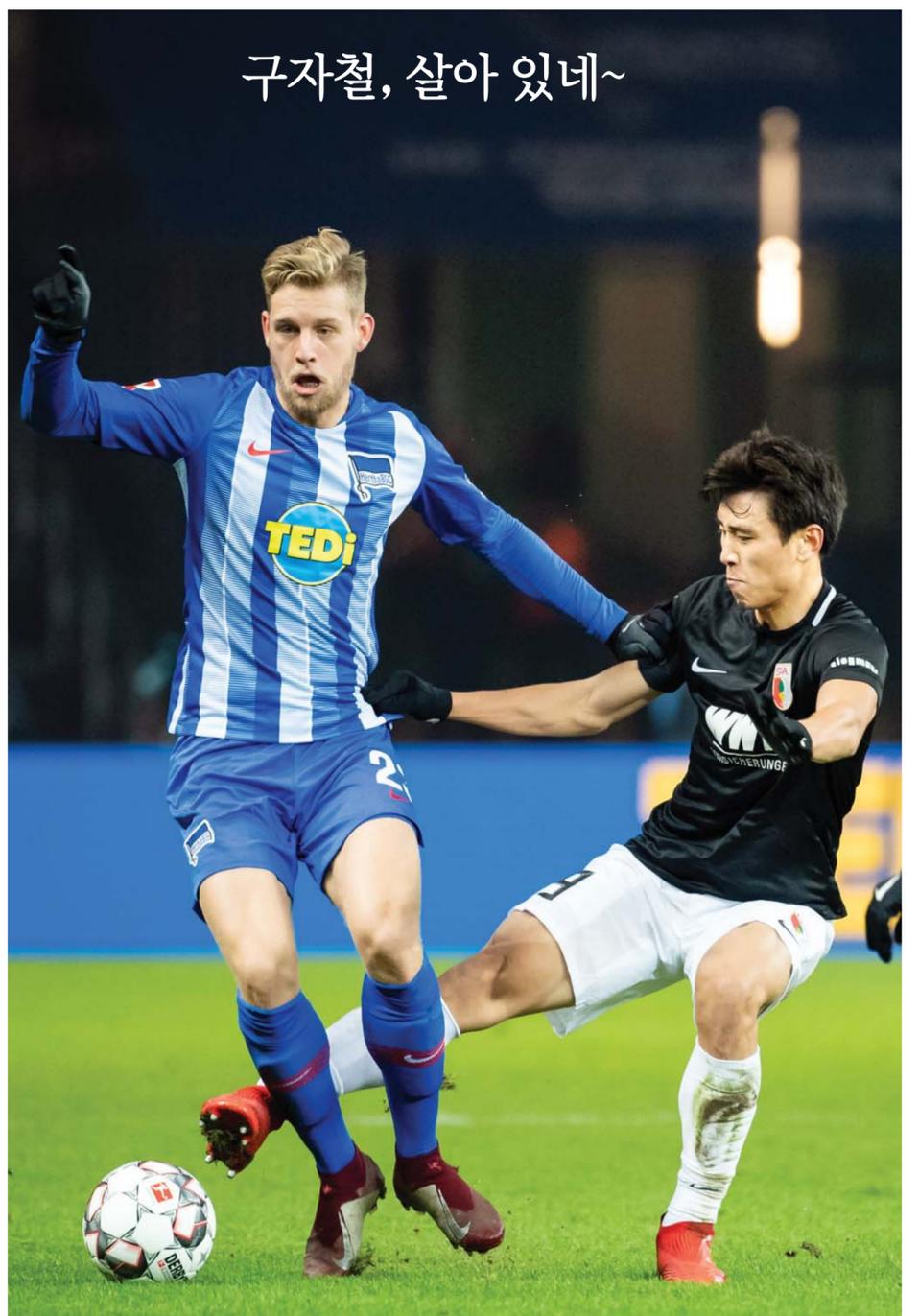
시즌 성적 1위서 5위 추락... 삭감된 총액 협상 테이블에 고과 제각각... '성적 vs 세밀함' 선수-구단간 이견차 속제 투수 고과 1위 김윤동 소폭 인상·윤석민 최다 삭감 전망

KIA 타이거즈의 연봉 협상 테이블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의 추운 겨울이다. 통합 우승을 이룬 지난해 KIA에는 연봉 흥풍이 불었다. 정규시즌 성적이 5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하면서 연봉 총액이 증가했고, 한국 시리즈까지 제패하면서 KIA 선수들은 우승 보너스도 두둑이 챙겼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017시즌과 반대로 1위에서 5위로 추락하면서 삭감된 연봉 총액을 놓고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 KIA는 지난 11월 마무리캠프에서부터 연봉 협상을 진행했다. 지역 연봉, 대폭 인상자와의 계약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주축 선수들과의 계약이 시작되면서 협상 진행 속도가 더뎠다. '우승 멤버'들의 연봉 삭감 바람 속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의 연봉 상승폭도 크지 않다. 개인 성적이라는 연봉 상승 조건에 팀

성적 하락이라는 변수가 적용되면서 선수들의 기대치와 구단의 제시액에 많은 격차가 생겼다. 복잡한 연봉 고과 시스템을 놓고도 선수들과 구단의 시각차가 크다. KIA는 투수들의 경우 700여 가지 넘는 항목으로 연봉 고과를 책정하고 있다. 야수들도 500여 가지가 넘는 기준에 따라 시즌을 평가받는다.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틀의 스탯(stat)보다는 훨씬 세밀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똑같은 피안타의 경우에도 땅볼 안타와 직선 안타, 피안타를 허용한 볼 카운트에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 올 시즌 상황과 연봉 고과 시스템에 따라 사실상 FA(자유계약선수)인 양현종을 제외하고 투수 고과 1위를 차지한 필승조 김윤동도 소폭 인상 대상자가 됐고, 첫 선발 시즌에서 7승을 기록한 한승혁도 등 록일수, 이닝 등의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서 연봉 고과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성적에 주목하는 선수들과 세밀함을 강조하는 구단의 이견 좁히기가 KIA 협상 테이블의 숙제가 되고 있다. FA 집중화에 따른 심리적인 격차도 KIA의 고민거리다. 'V11'의 분위기를 탄 KIA는 올 시즌 108억6500만원(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4명)이라는 10개 구단 최고 연봉 총액을 기록했다. 평균 연봉도 2억 120만원으로 1위였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크다. 올 시즌 23억원을 받은 양현종을 포함해 FA신분인 최형우(15억원), 윤석민(12억5000만원), 이범호(6억5000만원), 나지완(6억원), 김주찬(4억원) 등 6명의 연봉이 67억에 달했다. 5억원의 연봉을 받았던 임창용까지 더하면 7명의 선수에게 72억원이 집중됐다. 남은 47명의 선수의 연봉 총액이 36억 6500만원, 평균 연봉은 약 7800만원이었다. 팀 성적과 상관없이 FA 선수들은 고정된 연봉을 받는다. 팀 성적 하락에 따른 연봉 삭감 바람은 비 FA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내년 시즌 KIA의 '빈부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FA 요건 미달로 일반 선수로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윤석민이 '역대 최다 삭감액'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앞두고 있지만, 김선빈과 안치홍이 '예비 FA 신분'이 되면서 FA 선수들의 연봉 비중은 내년 시즌이 끝난 뒤 다시 치솟을 수도 있다. 팽팽한 기싸움 속 집토끼 단속까지 해야 하는 만큼 이번 겨울 KIA의 연봉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KIA는 내년 겨울 'FA 최대어'로 꼽히는 안치홍 측과 19일 처음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구자철, 살아 있네~



분데스리가가 3개월만에 득점포 재가동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하는 구자철(29)이 3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구자철은 19일 열린 헤르타 베를린과의 2018-2019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로 뒤지던 전반 39분 균형을 맞추는 골을 터뜨렸다. 9월 22일 브레멘과의 4라운드 이후 약 3달 만에 나온 구자철의 시즌 두 번째 골이다. 첫 골 이후 10월 급성 신우신염을 앓고, 11월엔 호주 원정 A매치에서 요추, 고관절 부상으로 조기 귀국하는 등 건강 문제가 계속됐던 그는 소속팀에서 최근 연속 선발 출전하고 모처럼 골맛까지 보며 건재함을 알렸다. 두 팀이 2-2로 비기면서 구자철의 골은 아우크스부르크에 승점 1을 안겼다. 최전방에 알프레도 핀보가손을, 2선에 지동원(27), 마하엘

그레고리치, 구자철을 배치한 아우크스부르크는 경기 시작 8분 만에 조나방 슈미트의 오른쪽 코너킥을 마르틴 힌터레거가 헤딩골로 연결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베를린은 연속 골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져갔다. 전반 28분 매슈 레키의 동점 골로 따라붙은 베를린은 3분 만에 역전까지 성공했다. 발렌티노 라자로의 오른쪽 강足を 아우크스부르크의 안드레아스 루테 골키퍼가 손으로 잘 막아냈으나 튀어나간 것을 은드레이 두다가 밀어 넣었다. 수세에 몰린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해결사로 나선 구자철이 있었다. 전반 39분 오른쪽 측면 슈미트에게서 시작된 패스가 핀보가손을 거쳐 구자철에게 이어졌고, 한 번 더 핀보가손과 볼을 주고받은 구자철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동점 골을 터뜨렸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구자철과 나란히 풀타임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 '상벌위 출석' 고개 숙인 이택근 "진심으로 미안"

3년전 문우람 폭행 뒤늦게 알려져...KBO 출석

문우람(26)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이택근(38)이 "3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택근은 19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폭행 사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KBO는 이택근이 2015년 5월 팀 후배 이던 문우람을 야구 배트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벌위를 열었다. 이택근은 넥센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3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다 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선수단 분위기와 기강을 살피는 것이었어도 문우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주위 모든 분께도 사과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이택근은 "이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상황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선후배 간 폭행을 당연히 하는 팀으로 오해받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넥센에서 외야수로 뛰던 문우람은 지금은 KBO에서 영구 실격된 상태다. 그는 2015년 승부 조작을 제외하고 브로커와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프로야구 선수 자격을 잃었다. 그러나 문우람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이택근에게 폭행당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연합뉴스